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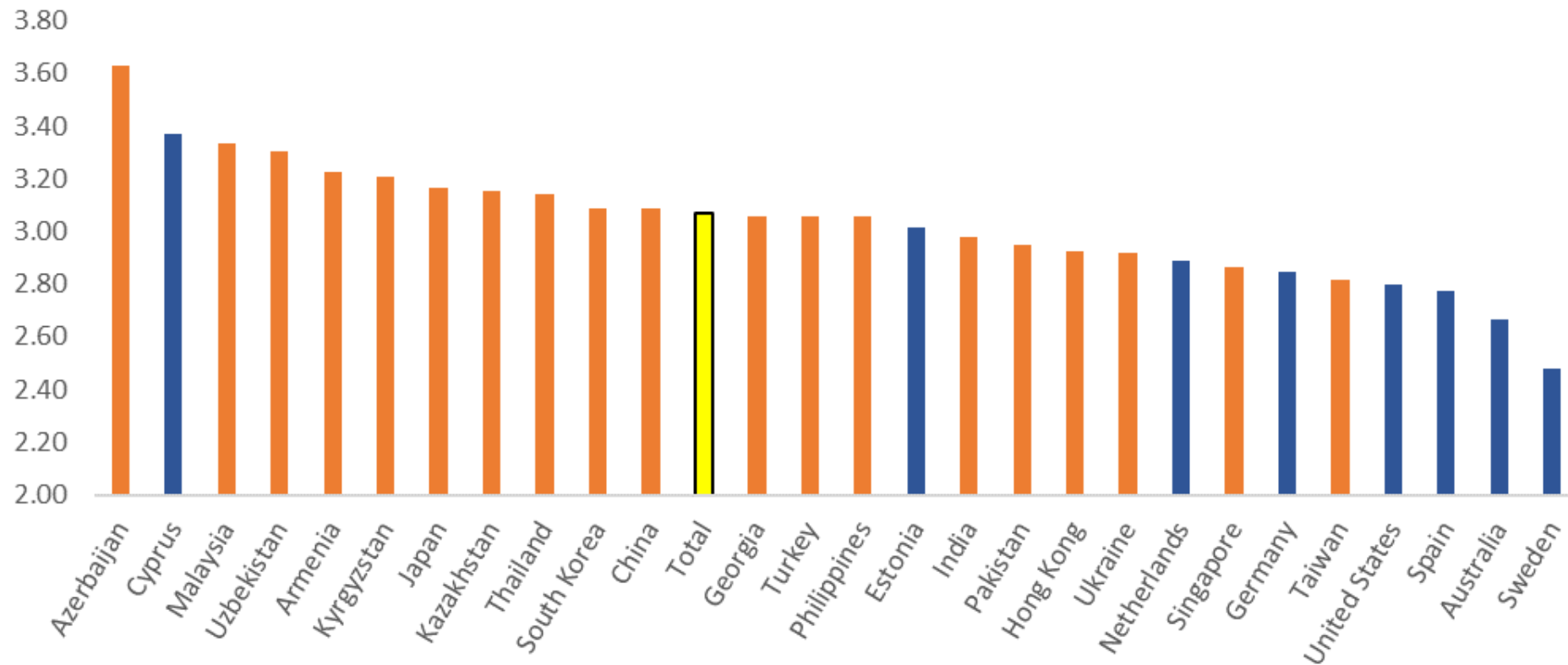
내집단 편향성과 사회 전반 신뢰에 대한 비교문화 분석

연세대학교 심리학과
김상민, 김영훈

연구 배경

➤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 – 서구권(미주/EU) vs 아시아

처음 만난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? (World Values Survey 2011; 1: 완전히 신뢰, 4: 전혀 신뢰하지 않음)



연구 배경

➤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과 문화

집단주의적 문화권의 개인주의적 문화권 대비 더 낮은 사회 전반 신뢰가 관찰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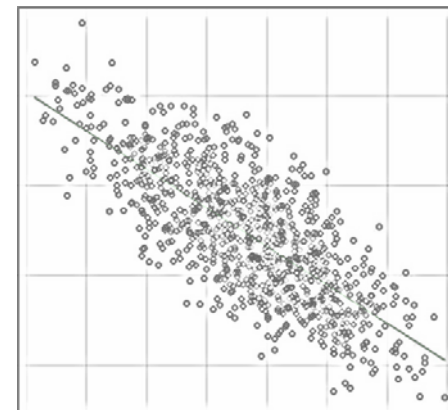
신뢰 수준 설문

Yamagishi & Yamagishi, 1989
Yamagishi, 1988



타인과 협력 수준

Yamagishi, Makimura, Foddy, Matsuda, Kiyonari, & Platow, 2005
Yamagishi, Mifune, Liu, & Pauling, 2008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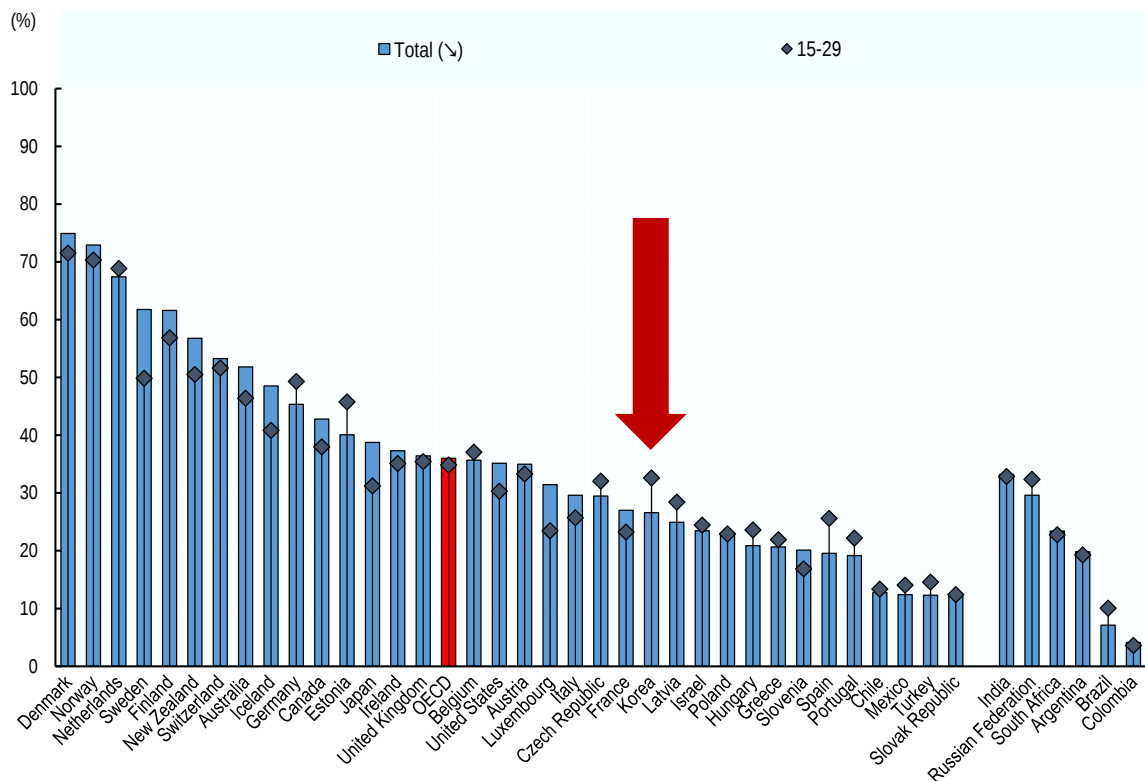
집단주의-타인에 대한 신뢰

Allik & Realo, 2004
Realo, Allik, & Greenfield, 2008

연구 배경

➤ 저신뢰 사회와 ‘우리 vs 남’

‘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’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 (OECD, 2014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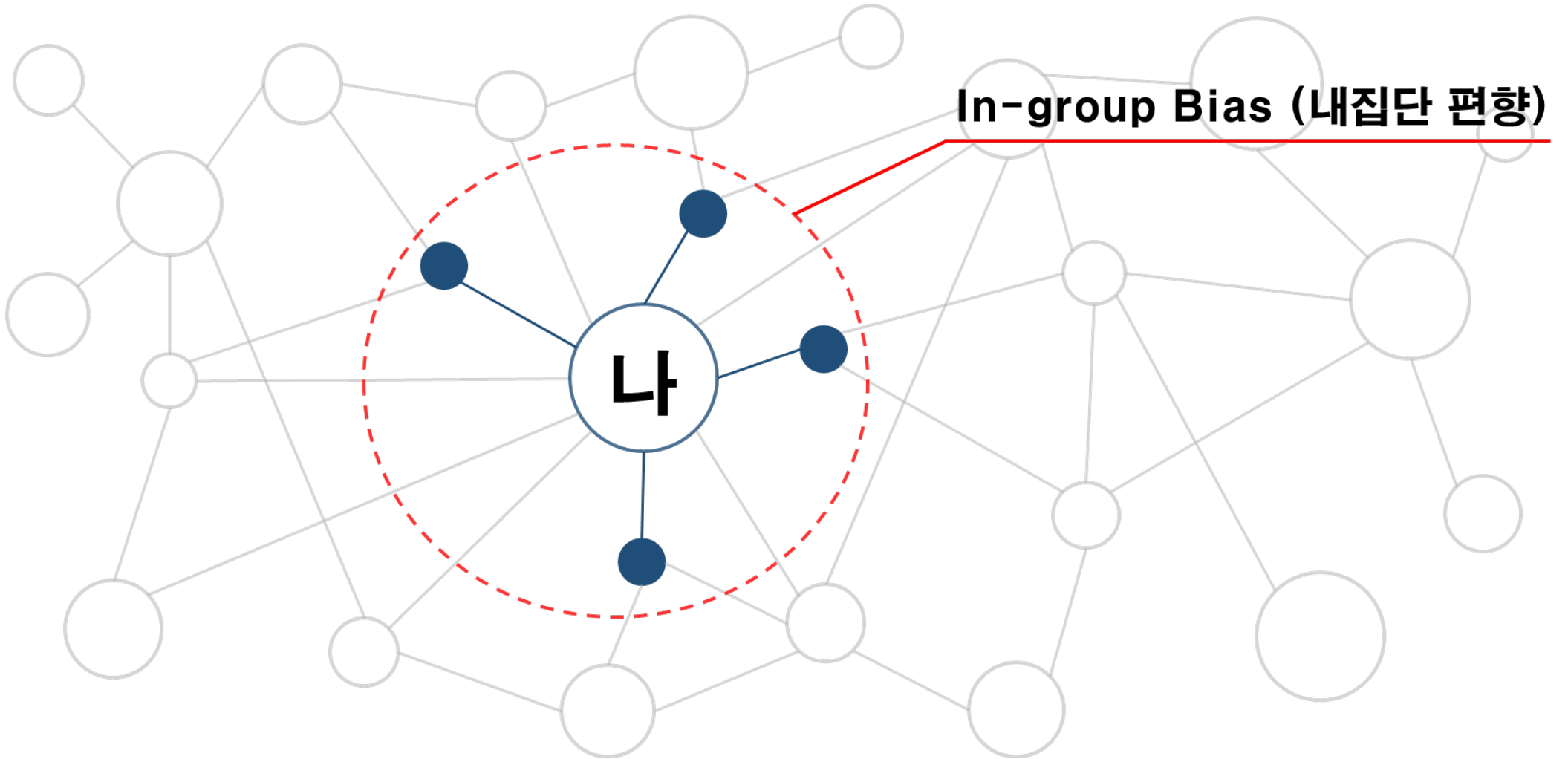
■ 신뢰하는 인간관계 (단위: %)



[자료 | 트렌드모니터, 참고 | 2017년 기준, 복수응답]

연구 배경

➤ 저신뢰 사회와 ‘우리 vs 남’



연구 가설

➤ 이전 연구 내용 및 연구 가설

- 내집단 편향은 범문화적인 현상이나, 내집단/외집단에 대한 태도는 문화차이를 보임
 - 내집단 편향성: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(내집단 향상),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(외집단 폄하) 및 그에 따른 행동
 - 상황적 맥락이나 문화권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더 신뢰(Balliet et al., 2014)
 - 그러나 내집단 및 외집단에 대한 태도는 문화권별로 차이를 띠(Chen et al., 1998; Ma-Kellams et al., 2011)
 - 따라서 내집단 편향의 문화권간 비교는 내집단 및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분리하여 볼 필요가 있음
- 내집단 편향성의 발현에 문화가 미치는 영향
 - 내집단 편향의 중요한 동기는 자아 향상, 긍정적 자아 평가에 있음(Tajfel, 1972; Turner et al., 1987)
 - 긍정적 자아 평가에 대한 동기는 범문화적이거나(Kim et al., 2010), 집단주의적 문화권은 상대적으로 겸손을 강조하며(Bond et al., 1982; Yoshida et al., 1982) 개인주의적 문화권에 비해 긍정적인 자아 평가가 덜 목격됨(Cai et al., 2007; Heine & Hamamura, 2007)
 - 집단주의적 개인이 지나치게 자신, 혹은 내집단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의 규범을 깨지 않고서 내집단 및 자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간접적으로 외집단을 폄하하는 것
 - 따라서 집단주의적 문화권에서는 개인주의적 문화권 대비 더 낮은 내집단 향상과 더 높은 외집단 폄하가 관찰될 것으로 예상
- 내집단 향상/외집단 폄하와 사회 전반 신뢰 간의 관계
 -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/행동은 외집단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음(Gaertner, 2006)
 - 사람들의 외집단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 타인에게서도 비슷하게 관찰됨(Balliet et al., 2014)
 - 따라서, 외집단 폄하는 내집단 향상보다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


연구 예상 결과 및 측정 변인

➤ 연구 예상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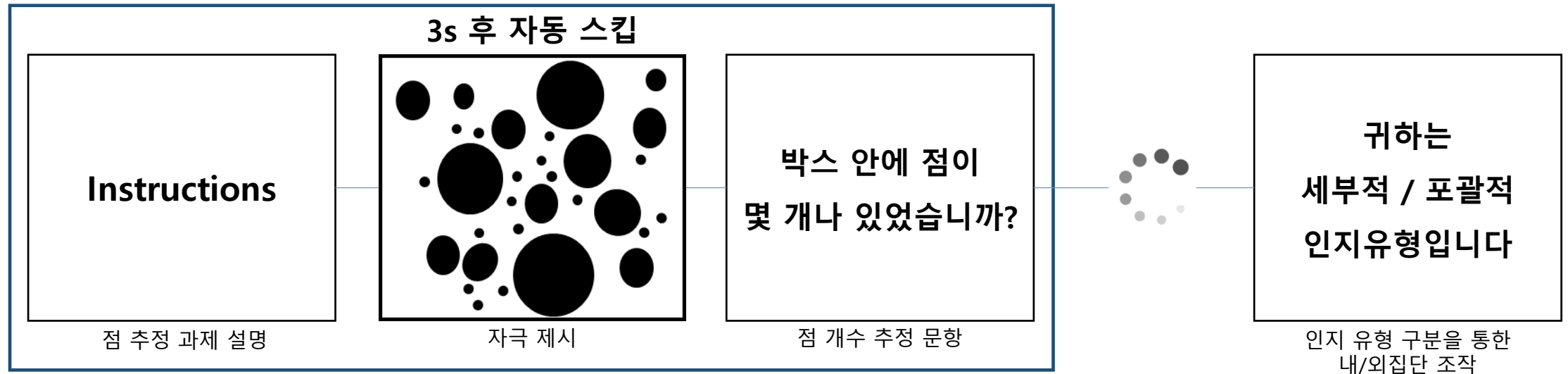
- 예상 1: 미국에 비해 한국의 내집단 향상 수준은 더 낮고 외집단 폼하 수준은 더 높을 것이다
- 예상 2: 미국에 비해 한국의 사회 전반 신뢰 수준은 더 낮을 것이다
- 예상 3: 외집단 폼하가 사회 전반 신뢰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내집단 향상보다 더 클 것이다
- 예상 4: 문화권 간 신뢰 차이를 외집단 폼하가 매개할 것이다

연구 예상 결과 및 측정 변인

➤ 내집단/외집단 구분 조작

- 내집단 편향성: 최소한의 집단 구분(minimal group paradigm) 후 내/외집단에 대한 긍/부정 특성 평가
 - Dot-Estimation Task: 점의 개수를 추정하게 한 후 참가자의 인지 유형을 알려줌(Gerard & Hoyt, 1974; Scheepers et al., 2006)
 - 실제로는 참가자의 인지 유형을 세부적(detailed) 또는 포괄적(global) 유형 중 무작위로 미리 배정, 점 추정 과제의 결과와 관계 없이 사전에 배정된 인지 유형을 참여자에게 테스트 결과인 것 처럼 제시

5회 반복(자극의 점 분포 패턴은 상이, 점 개수는 모두 동일)



측정 변인

➤ 측정 변인

- 내집단 편향성: 본인의 인지유형 확인 후 내/외집단에 대한 긍정/부정 특성(Crocker et al., 1987) 평가
 - 긍정 특성: 사려깊은, 지적인, 신뢰할 만한, 정직한, 친근한, 창의적인, 야심 있는, 의욕적인
 - 부정 특성: 무례한, 멍청한, 지루한, 지식이 부족한, 이기적인, 둔감한, 실력 없는, 무관심한
 - 예) '세부적/포괄적 인지 유형의 사람들은 대체로 사려깊다': 1: 전혀 그렇지 않음 - 7: 매우 그러함
 - 내집단 향상: (내집단에 대한 긍정 특성 평가 수준) – (내집단에 대한 부정 특성 평가 수준)
 - 외집단 폄하: (외집단에 대한 부정 특성 평가 수준) – (외집단에 대한 긍정 특성 평가 수준)

연구 예상 결과 및 측정 변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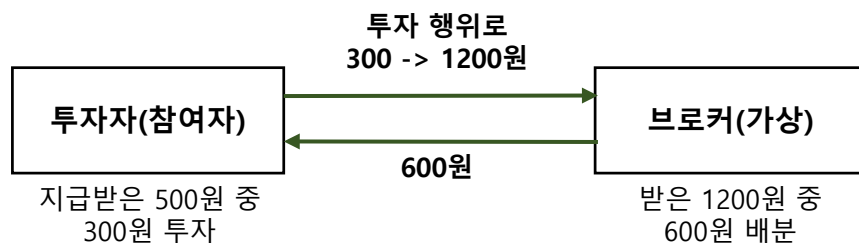
➤ 측정 변인(계속)

- 사회 전반 신뢰 수준: 일반인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문항 척도, 상황 판단 및 행동 변인 측정
 - **General Trust** (General Trust scale; Mooijman et al., 2015):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불신 수준을 8개 문항으로 측정 (예: '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된다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 규칙을 어길 것이다')
 - **Situational Trust**: 5개의 vignette를 제시한 후 각각의 비네트에서 언급된 대상이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측정

제시 상황 예시

한 레스토랑이 장마철 고객들에게 무료로 우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장마철이 끝난 후 공짜로 제공한 우산의 80% 이상이 회수되었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?

- **Behavioral Trust** (투자 게임): 임의의 파트너와 투자게임을 통해 신원을 모르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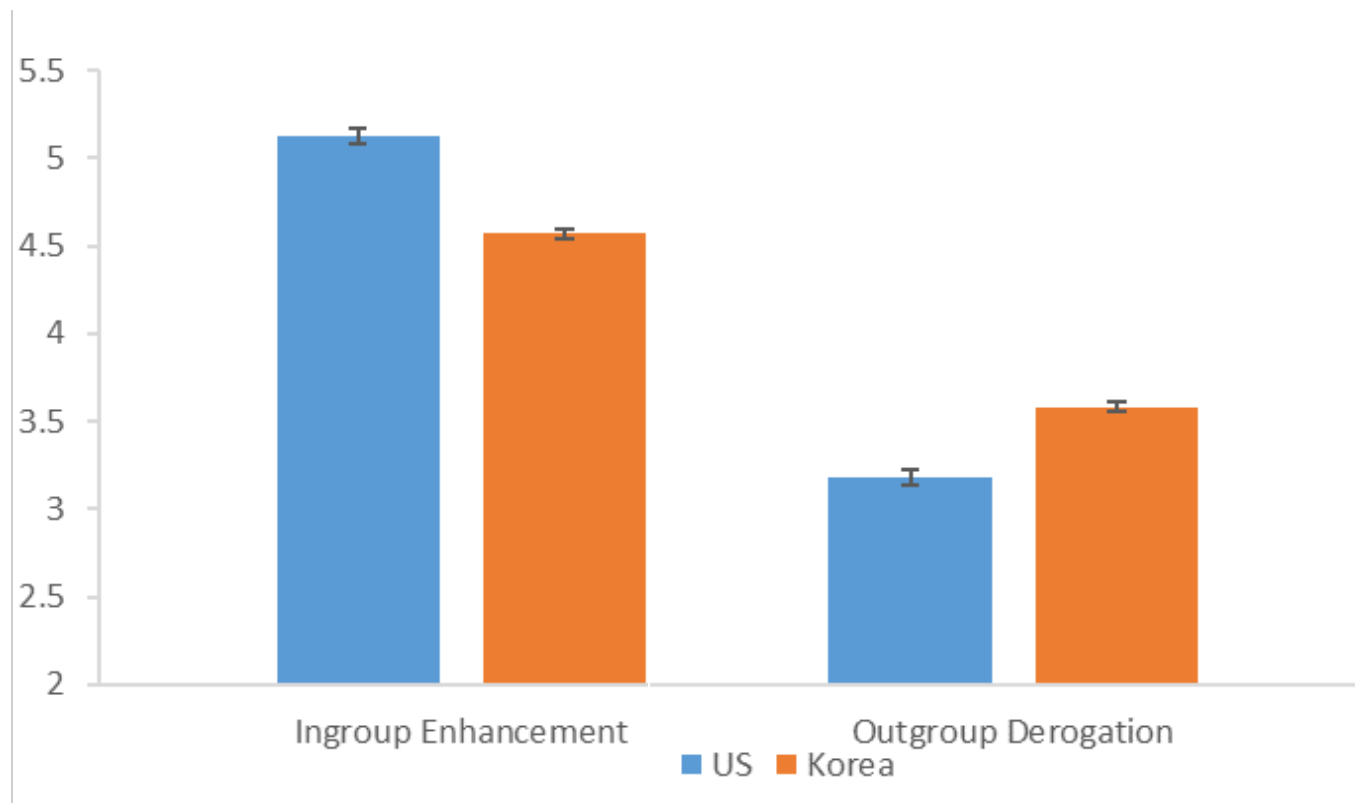


- 투자자 역할의 참여자가 브로커 역할의 참여자에게 일정 금액을 '투자'
- 투자된 금액은 4배가 되어 브로커 참여자에게 전달되며, 브로커는 이 금액을 본인과 투자자 사이에 마음대로 분배 가능
- 따라서 투자자 역할의 참여자가 투자하는 금액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 수준을 나타냄(Berg et al., 1995; Dunning et al., 2014; Fennis & Warlop, 2014)
- 참여자들에게는 임의로 투자자/브로커 역할이 배정될 것으로 알려준 후 실제로는 전원 투자자 역할로 배정되며 투자 금액을 신뢰 수준으로 측정

연구 결과

➤ 내집단 편향성의 국가간 비교

- 미국 486명(남자 232명), 한국 519명(남자 245명) 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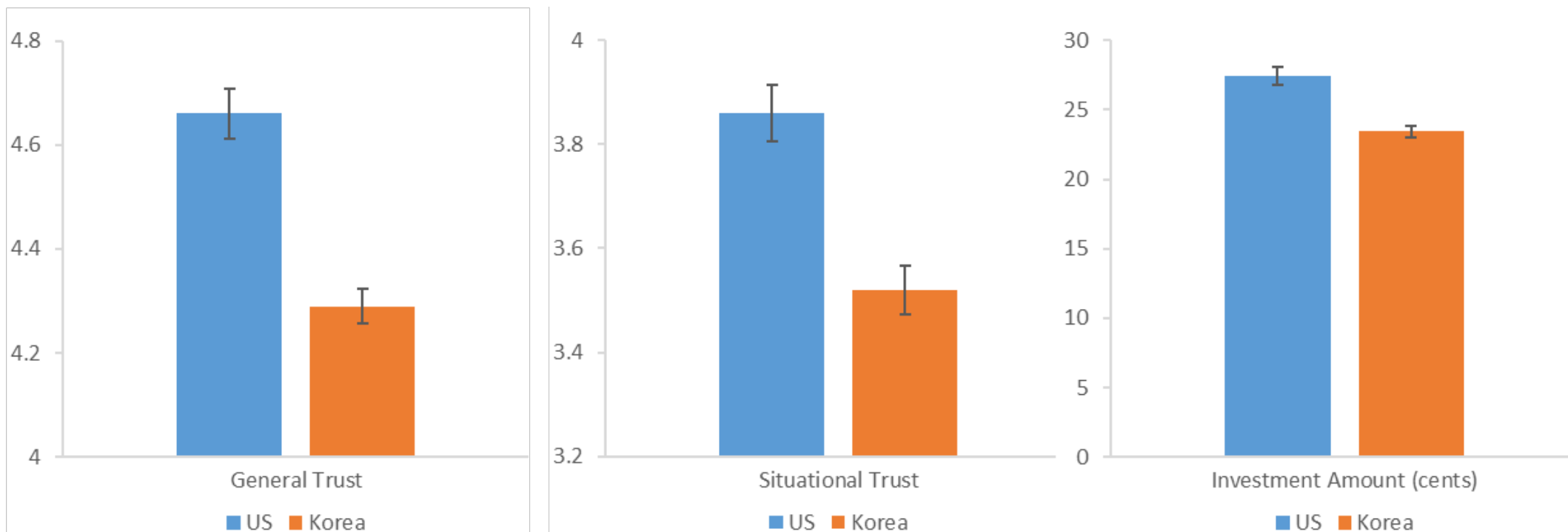


- 내집단 향상 수준: 한국이 미국보다 유의미하게 낮음 ($p < .001$)
- 외집단 폄하 수준: 한국이 미국보다 유의미하게 높음 ($p < .001$)

연구 결과

➤ 사회 전반 신뢰수준의 국가간 비교

- General Trust (설문 문항), Situational Trust (Vignette 제시), Behavioral Trust (투자 게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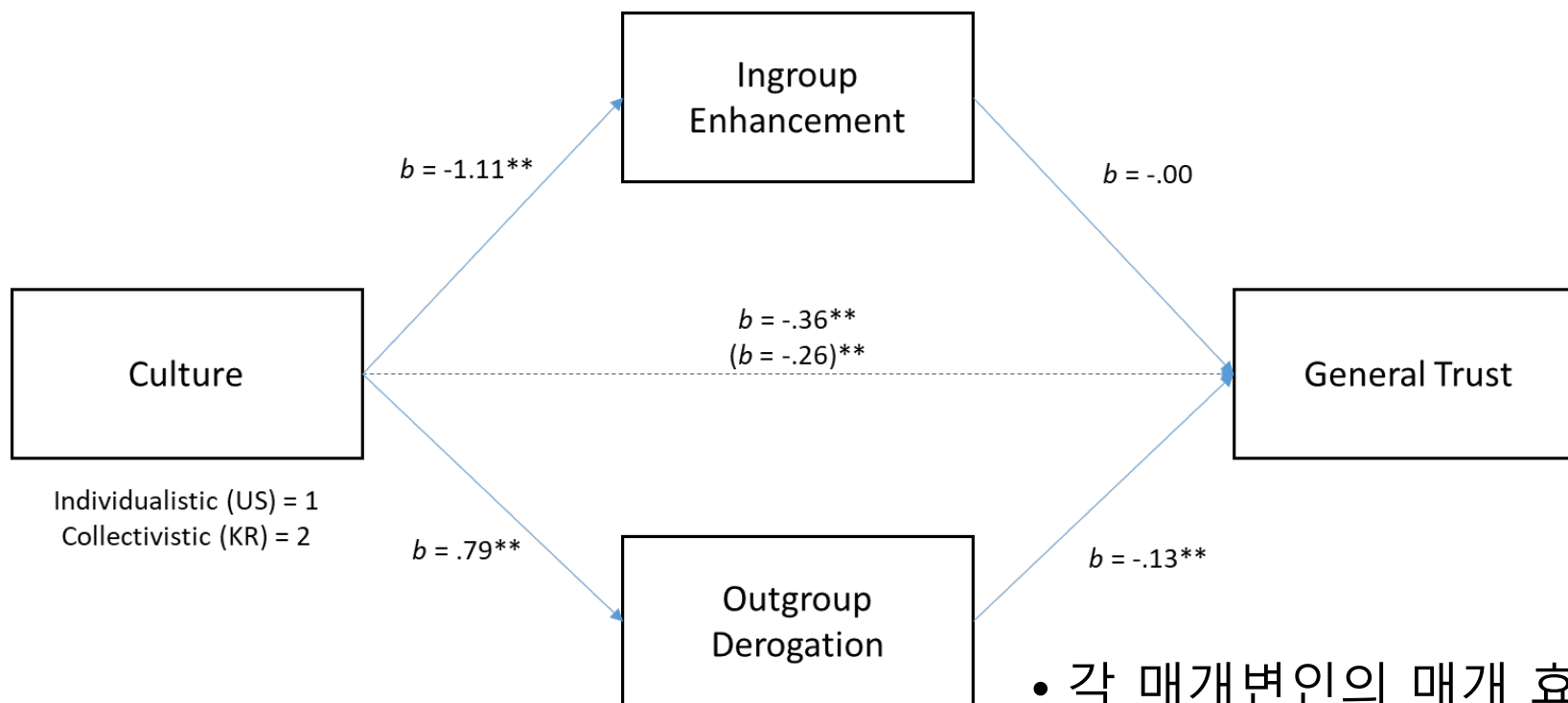


- 모든 척도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더 낮은 사회 전반 신뢰 수준을 보여줌 ($p < .001$)

연구 결과

➤ 내집단 향상 및 외집단 폄하를 매개변인으로 놓은 매개분석 결과

- General Trust의 경우 외집단 폄하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관찰되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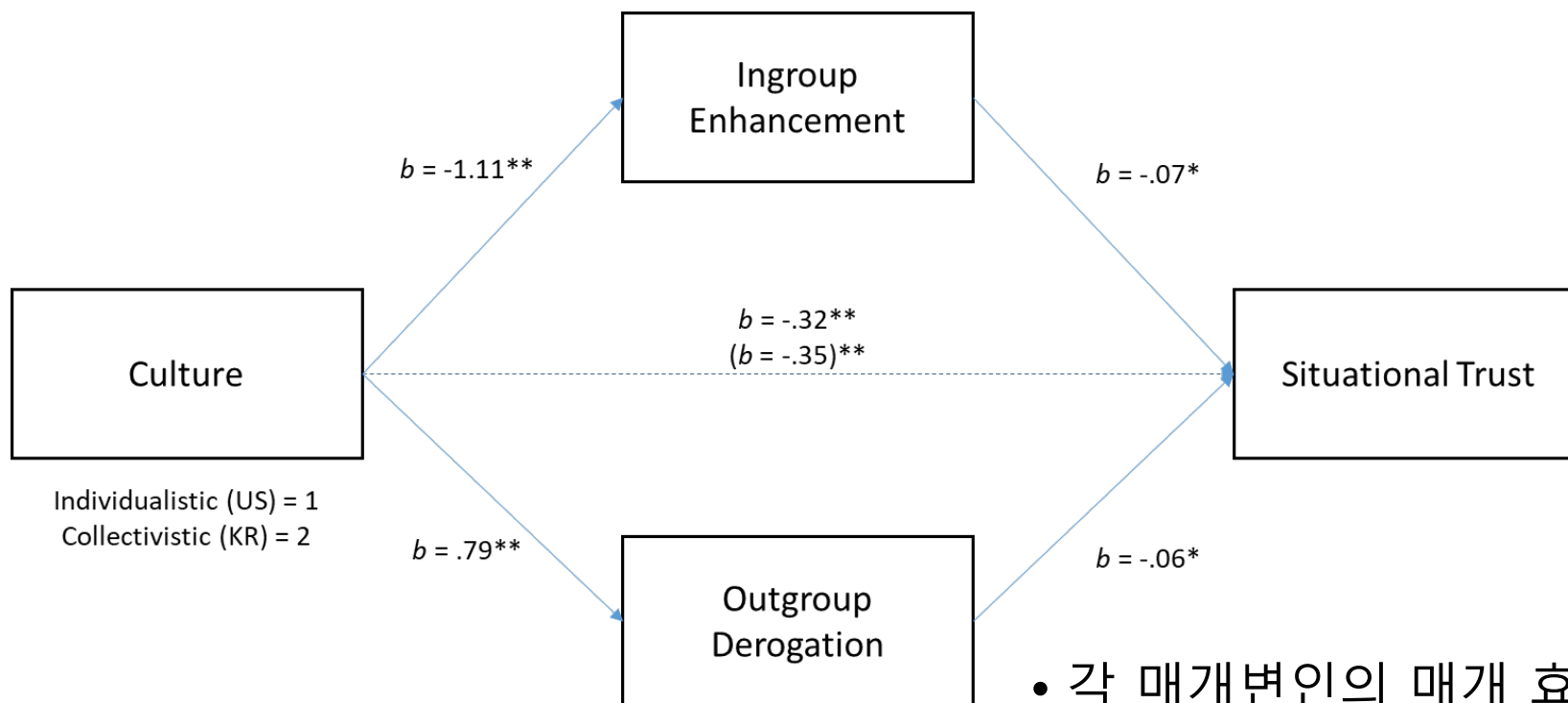
* $p < .05$, ** $p < .001$

- 각 매개변인의 매개 효과 CI (5,000 Bootstrap)
 - 내집단 향상: 95% CI = $[-.05, .06]$
 - 외집단 폄하: 95% CI = $[-.16, -.06]$

연구 결과

➤ 내집단 향상 및 외집단 폄하를 매개변인으로 놓은 매개분석 결과

- Situational Trust의 경우 내집단 향상과 외집단 폄하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관찰되었음



* $p < .05$, ** $p < .001$

- 각 매개변인의 매개 효과 CI (5,000 Bootstrap)
 - 내집단 향상: 95% CI = [.00, .15]
 - 외집단 폄하: 90% CI = [-.09, -.01], 95% CI = [-.10, .00],

연구 요약 및 Contribution

➤ 미국과 한국 간 내집단 편향성, 신뢰 수준 비교

- 미국은 한국에 비해 더 높은 내집단 향상을, 한국은 미국에 비해 더 높은 외집단 편하를 보여줌
 - 내집단 편향성의 이론적 근거와 검손을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문화권의 특성에 기반한 예상에 부합
 - 내집단 향상과 외집단 편하를 명확하게 구분, 내집단 편향성의 발현에 있어 비교문화적 차이를 관찰하였음
- 모든 사회 전반 신뢰 수준에서 미국 > 한국이 관찰됨
 - 기존의 문화권 간 신뢰수준 비교 연구 및 다국적 연구 결과(WVS, OECD)에 부합
 - 문항 기반(General Trust), 상황 판단 기반(Situational Trust), 그리고 행동 기반(투자 게임)을 통한 한국의 저신뢰 현상을 재확인

➤ 외집단 편하와 사회 전반 신뢰간 관계 확인

- General Trust 및 Situational Trust에서 외집단 편하가 한국과 미국간 신뢰 차이를 매개
- Situational Trust의 경우 내집단 향상 역시 한국과 미국간 신뢰 차이를 매개

한계 및 후속 연구 방향

➤ 한계점

- 투자게임에서 예상했던 외집단 편향성의 신뢰수준과 투자 금액간의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음
 - 투자게임의 쌍방향 소통/거래 특성상 '사회 전반'에 대한 신뢰 이외의 요소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(규범적 신뢰 (Dunning et al., 2014); 정서적 상태 (Dunn & Schweitzer, 2005))
- 예상과 달리 내집단 향상이 한국과 미국 간의 Situational Trust를 유의하게 매개
 - Situational Trust의 경우 General Trust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참가자들이 해당 상황 내 인물들을 '대다수의 사람들'이 아닌 '지인'을 설정했을 가능성 (Situational Trust에 대한 내집단 향상의 회귀계수 부호가 미국-한국 참여자 샘플 각각에서 반대로 관찰되었음; 미국 $r = -.11$, 한국 $r = .01$)
- 내집단 편향성과 사회 전반 신뢰간 인과관계 분석 미비

➤ 후속 연구 방향

- 직관적이고 현존하는 집단 구분을 통한 내집단 편향성 측정 및 가설 검증
- 내집단 편향성 조작 실험을 통한 인과관계 및 예측 방향성 확인
- 사회 전반 신뢰 관련 행동 척도의 추가 분석
 - 투자 게임 재시도 & 기타 행동 변인(자원 분배, 협력 게임 등) 고려
- 내집단 편향성 발현의 문화권간 차이의 잠재적 매개 변인 직접 측정 및 검증 (modesty concern 등)



감사합니다

